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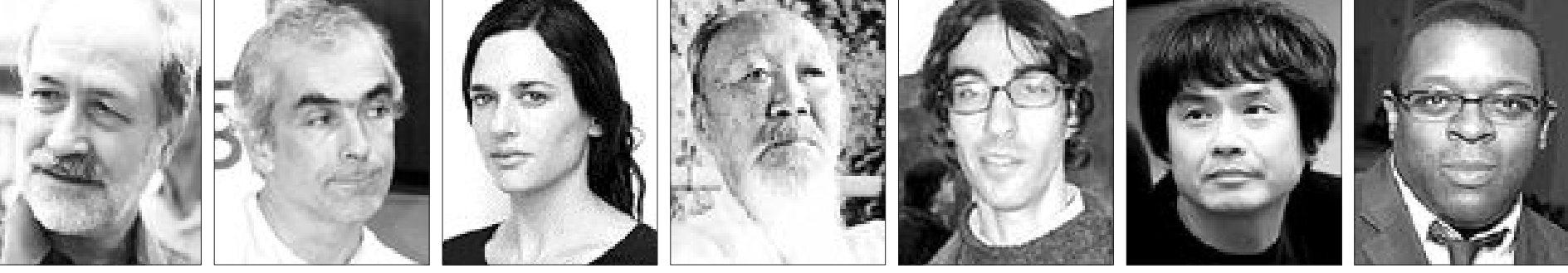
벨기에 U대회 총회 회장 '차관서 격상'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간다



감안했을 때 차관이 참석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표 단장을 유장관으로 격상시킬 것을 약속했다.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정부 대표단 단장이 장관급으로 확정됐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U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해 오는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단 단장을 유인촌(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대표단 단장의 직급이 장관으로 한 단계 격상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정부의 지원 의지가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외교통상부 직원들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29일 벨기에로 떠날 예정이다. 광주시는 22일 브뤼셀에 현지사무소를 설치해 총회에 대비하는 한편 박광대 시장과 김운용 명예위원장 등을 비롯한 유치위원회 핵심 인물들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 대륙을 나눠 정부 대표단장에 장관이 참석했던 전례와 국제대회의 규모 및 위상을



<한스 하케> <후안 마이디안> <타린 사이먼> <의재 허백련> <매튜 모나한> <요시모토 나라> <아이작 줄리앙>

광주서 세계 화제 전시작 본다

9월 개막 비엔날레, 36개국 160명 1,339점 출품

실험성 강한 작가 위주 선정... 관람객과 소통 의문

오는 9월 개막하는 제7회 광주비엔날레(9월5~11월9일)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36개국 작가 160명의 작품 1천339점이 출품된다. <관객기사 15편> 특히 광주비엔날레 사상 처음으로 특정한 주제 없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세계 미술계의 이목을 끌었던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색선별 참여 작가와 작품 등 2008 광주비엔날레의 전시구성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쿠이 엔위저(Okui Enwezor) 예술감독은 "지난 1년동안 미술계에 큰 화두를 던진 38개의 전시회가 공간적인 제한을 뛰어 넘어 광주에서 66일간

열린다"면서 "요절한 천재작가 고든 마타 클락(미국·1943~1978), 타린 사이먼·매튜 모나한(미국), 한스 하케(독일), 행위예갈라 부부인 돌로레스 지니·후안 마이디안(아르헨티나), 요시모토 나라(일본), 아이작 줄리앙(영국) 등 실험성 강한 작가들이 대거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참여작가 28명 중 광주·전남 지역 작가는 모두 6명이 선정됐다. "길 위에서" 색선에는 허백련(1891~1977) 화백의 작품이 전시되고, "제인" 색선에는 마분호, 신호윤, 박문종씨가 참여한다. "끼워 넣기" 색선에는 황지영, 남화연씨의 작품이 선보인다.

관공록기자 kroh@kwangju.co.kr

영산강변, 세계 최고 마라톤 코스 조성

영산강 발원지인 담양읍에서 목포까지 124km에 걸친 자전거 도로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강변 마라톤 코스가 조성된다. 전남도는 22일 2015년 안목포로 추진중인 나주~목포간 65.9km 영산강변 도로에 세계 최고 수준의 마라톤 코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도는 3단계로 걸쳐 1천660억원을 투입해 차도와 보도, 자전거도로, 조

망 정차대 등을 개설해 이 도로를 전남과 함께 성장하는 도로라는 의미의 'Growth Way'로 명명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산강변 도로에 마라톤 코스를 만들면 아름다운 영산강을 조망하면서 관광객이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라톤 코스로 2015년까지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문화수도 조성위원장 인선 '고민되네'

이어령·어윤대 씨 등 거물급 잇단 고사

청와대, 후보 물색 난항... '내달 중 선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후임 인선에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총리급이라는 점에서 적당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데 적절한 인사는 없다는 말이 고사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문화관광체육부 및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3월19일 조영택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이 해촉된 지 60일이 훌쩍 넘었지만 청와대는 좀처럼 후임 인선을 가다지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광주 문화수도에 대한 정권 차원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에 거물급 인사를 위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두 달 동안 인재풀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적절한 인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청와대 측에서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에 위원장직을 제의했으나 "고령인데다 관직을 맡지 않겠다"는 고사 입장을 듣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과 박범용 중앙대 총장도 청와대의 위원장직 제의에 개인적 이유를 들어 고사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역에서는 여권의 H씨와 P씨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물급 인사들의 연이은 위원장직 고사에 청와대는 광주·전남지역 친여권 성향 인사들을 포함, 후보군 물색에 나서고 있으나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거물급 인사들이 고사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배경도 있었지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에 예우만 총리급이 조성위원 등을 제외

하고는 사실상 하부 조직이 전무한데다 정부 지원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위원장이 문공부와 광주 사이에 샌드위치에 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계략' 같은 자리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공부 관계자는 "아직 청와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후보군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라며 "그러나 6월 내에 후보군을 확정하고 위원장 선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을 지냈던 조영택 국회의원 당선자도 "조성위원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예비 연대장들의 전투 체형 22일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육군 과학화전투훈련장(KTC)에서 연대장 보직 예정자들이 모의 전투 체형 시간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A cartoon illustration with a speech bubble and a signature.

공공기관장 내달까지 240곳 교체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305개 공공기관을 가운데 240곳 안팎의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특히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KBS의 경우 그 결과를 지켜보 뒤 경영 성과가 미진하거나 경영자로서 자질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면 사퇴를 강력 추진키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교과부 간부들 나랏돈으로 생색

모교에 500만원씩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학교 현장 방문 차원에서 자신의 모교를 찾아가면서 국가 예산으로 도사구입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교과부에 따르면 올해 스승의 날(5월15일)을 기념해 기획조정실장, 과학정책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27명이 일선 학교 현장을 방문키로 하고 이중 6명이 최근 출신 지역 학교, 모교 등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는 김도연 교과부 장관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간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봐야 한다는

학교 방문을 적극 독려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이 학교를 방문한 기념으로 학교당 500만원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키로 한 데 있다. 학교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실·국장 6명은 김 장관 명의로 된 지원증서를 해당 학교측에 전달했으며, 증서에는 도사구입비와 교구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현장을 방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모교 등 특정 학교에 국가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先報 光州 光州 C.C. 分心. Advertisement for a newspaper and a local business.

전설업 양도·양수 신청공고. Public notice regarding business transfer and acquisition.

산행안내. Hiking guide listing various trail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iking groups.